

유큐산 공원

유큐산 공원은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며,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상순부터 중순까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가을 또한 인기 있는 계절로 단풍이 산책로를 갈색, 붉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으로 수놓습니다. 이 공원은 바로 동쪽에 있는 유큐 산과 연관 지어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공원의 기원은 에도시대(1603-186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 나가오카번의 3대 번주 마키노 다다토키(1665-1722년)가 벚꽃과 삼나무, 소나무 등의 모종을 여러 개 심어 기른 것이 시초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벚나무는 약 2,500 그루에 달하며, 이 지역의 매력을 크게 드높여 사람들이 모이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원은 나가오카 개부(開府, 관공서가 들어서고 도시가 열린 것) 300주년을 기념해 1918년에 개장되었습니다. 에네오스 석유의 창업자이자 나가오카 출신인 야마다 마사시치(1855-1917년)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원 입구 근처에 있는 아오시 신사는 250년에 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11월에 열리는 ‘시치고산(七五三)’(7세, 5세, 3세 어린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전통 행사) 때는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방문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고, 설날에는 하쓰모데(새해 첫 참배)를 하러 가는 등 서민적인 풍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내에는 ‘충견 시로 신사’도 있습니다. 현지의 전설에 따르면 ‘시로(일본어로 ‘흰색’이라는 뜻)’는 번주 마키노 다다토키가 귀여워하던 개입니다. 다다토키가 에도(현재 도쿄)에 갔을 때 다다토키를 그리워하며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에도에서 다른 번의 개와 소동을 일으켜 다다토키에게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시로는 나가오카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300km의 길을 걸어서 돌아갔지만, 성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언덕 위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충견의 모습을 가엾게 여겨 시로를 애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 ‘백구의 묘’를 만들었고, 2018년에 나가오카 개부 400주년을 기념해 경내에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신사 근처에는 나가오카의 경제계를 은퇴한 유지가 1919년에 지은 ‘다마 다리(뱀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옆에는 나가오카번의 다이산지(현 부지사직)이자 교육의 선구자인 고바야시 도라사부로(1828-1877년)의 기념비도 있습니다. 고바야시 도라사부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원을 인재 양성과 교육에 투자하는 ‘고메햏표’ 정신을 널리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식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번에서 기부받은 쌀을 먹지 않고 팔아서 대신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자고 제안한 것이 고메햏표(쌀 백 섬이라는 뜻)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분이나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분께는 원숭이 산 등이 있는 유큐산 동물원을 추천합니다.

나가오카시 향토 사료관은 이 공원의 큰 매력입니다. 하얀 다층 구조의 멋진 건물 디자인은 에도 시대(1603-1867년) 성의 천수각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건물 내에는 13대에 걸쳐 나가오카시를 이끌어 온 마키노 가문과 근래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해군 대장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1884-1943년) 등 현재 나가오카시를 구축해 온 사람들의 업적과 생활을 통해 나가오카시의 역사를 자세히

전시하고 있습니다.